

# 장릉 정자각 중건상량문 해설 (章陵 丁字閣 重建上樑文 解說)

李 延 燮

(文化財專門委員)

## 1. 조사경위(調查經緯) 및 형태(形態)

이 상량문(上樑文)은 조선(朝鮮) 제 16 대왕(代王) 인조(仁祖)인 원종(元宗)(추존(追尊))과 원종(元宗)의 비(妃) 인헌왕후(仁獻王后)(추존(追尊)) 구씨(具氏)의 능침(陵寢)인 장릉(章陵)의 정자각(丁字閣) 상량(上樑) 때 축복(祝福)을 목적으로 지은 글이다.

### 1) 조사경위(調查經緯)

이 상량문(上樑文)은 1985年 5月 28日 문화재관리국궁원관리과(文化財管理局宮園管理課) 김유곤(金有坤) 기사(技士)가 본(本)정자각(丁字閣)의 보수를 위해 목부(木部)해체 공사중 도리부분에 묵서(墨書) 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유심히 관찰하였던 바, 종도리(宗道里) 밑 장려(長欄) : 장여) 묵서(墨書) 중앙부 홈에서 발견되었다 하며, 또한 이를 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文化財研究所保存科學研究室)에서 훈증(燻蒸)처리한 후 제자리에 넣어 두었다 한다.

### 2) 형태(形態)

세로(폭(幅)) 36.5cm, 가로(길이) 1,505cm의 온필 명주(明紬)에 묵서(墨書) 해서체(楷書體)로 쓰여졌다. 총 길이 1,505cm 중 실제 상량문(上樑文)이 쓰여진 부분은 약 512cm(전부(前部) 50cm공백) 이고 그 뒷부분은 공백인 상태이며, 맨 후미(後尾)에는 또 53cm정도의 삼베로 이어 붙이기도 하였다.

상량(上樑)한 연대(年代)는 동치구년(同治九年) 즉 고종(高宗) 7年(1870) 4月 14日이며, 상량문(上樑文)의 작성(作成) 및 필사(筆寫)한 연대(年代)도 이와 동시(同時)로 볼 수 있다. 이 상량문(上樑文)은 당시 좌참찬(左參贊) 겸규장각검교제학(兼奎章閣檢校提學) 조석우(曹錫雨)가 왕명(王命)에 의해 글을 짓고, 상호군(上護軍) 남성원(南性元)이 역시 왕명(王命)에 의해 썼다. 총 93행(行)에 대체로 매행(每行)에 7자씩 쓰여졌다. 보존상태(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두식(蠹蝕)한 곳이 많고 글자를 판독할 수 없는 곳도 더러 있다.

## 2. 장릉(章陵)의 유래(由來)

장릉(章陵)은 조선(朝鮮) 원종(元宗)(추존(追尊))과 동비(同妃) 인헌왕후(仁獻王后)(추존(追尊)) 구씨(具氏)의 능(陵)으로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김포읍(金浦邑) 풍무리(豐舞里) 141의 1에 위치해 있다. 1970年 5月 26日에 사적(史蹟) 제202호(號)호 지정되었다.

원종(元宗)(선조13, 1580~광해군 11, 1619)은 선조(宣祖)의 제(第) 5자(子)이며 인조(仁祖)의 생부(生父)로 이름은 부(瑋). 선조(宣祖) 20年(1587)에 정원군(定遠君)에 봉(封)해지고, 선조(宣祖) 37年(1604), 앞서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했던 공(功)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等)에 책록(策錄)되었고, 인조(仁祖) 5年(1627)에 조신(朝臣)의 논란 끝에 왕(王)으로 추존(追尊)되었다. 명(明)에서 받은 시호(諡號)는 공량(恭良)이다. 인헌왕후(仁獻王后)(선조 11, 1578~인조 4, 1626) 구씨(具氏)는 원종(元宗)의 비(妃)로 본관(本貫)은 능성(綾城), 좌찬성(左贊成),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의 딸, 인조(仁祖)의 생모(生母). 선조(宣祖) 13年(1590)에 가례(嘉禮)를 행하여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으로 봉(封)해지고, 1623年 인조반정후(仁祖反正後) 부부인(府夫人)에 진봉(進封), 궁호(宮號)는 계운궁(啓運宮)이라 하였다. 인조(仁祖) 10年(1632) 정원군(定遠君)이 원종(元宗)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헌왕후(仁獻王后)로 추존(追尊)되었다.

당초 인조(仁祖) 4年(1626)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승하로 그해 5月 18日 이곳에 장사지내고 육경원(毓慶園)이라 부르다가, 이듬해 8月 7日 양주(楊州) 군장리(羣場里)에 안장(安葬)된 원종(元宗)의 능(陵)을 이곳으로 옮겨 합장(合葬)하고는 흥경원(興慶園)이라 하였으며, 인조(仁祖) 10年(1632) 원종(元宗)의 추존(追尊)과 동시(同時)에 장릉(章陵)으로 고쳤는데, 나란히 쌍봉(雙封)으로 모셔졌다.

### 3. 상량문(上樑文) 및 역문(譯文)

#### 1) 상량문(上樑文)

장릉정자각중건상량문(章陵丁字閣重建上樑文)

영원부감(靈原負坎) 영반검 지유(永攀劔 之遺) 선침개관(仙寢改觀) 중송륜환지미(重頌輪奐之美) 용휴신명(用休申命) 물극자래(勿亟子來)

공유(恭惟) 원종(元宗) 공량(恭良) 경덕(敬德) 인헌(仁獻) 정목(靖穆) 장효대왕(章孝大王) 특정영명(特挺英明) 독생신성(篤生神聖) 충군효친출어성(忠君孝親出於性) 치간회이지외훈인민애물위지심(值艱會而著巍勳仁民愛物爲之心) 계획운이회홍업(啓熙運而恢洪業) 소이준추왕지예(所以遵追王之禮) 서소목어종궁(序昭穆於宗宮) 계우봉모천지용(繼又奉墓天之容) 배공덕어남전(配功德於南殿) 염후범습명가지훈(念后範襲名家之訓) 이자권융가부지거(而慈眷隆佳婦之舉) 사옥새이진일방(賜玉璽以鎮一邦) 이몽험수명지본(異夢驗受命之本) 산금백이려제장(散金帛以勵諸將) 대계찬거의지초(大計贊學義之初) 권피동양지부우(睠彼同壤之駙隅) 엄유옹강지상설(儼有擁岡之象設) 연유정수(筵帷靚邃) 천변두이시흠(薦籩豆而時歆) 사승청(祀肅淸) 유의관이월출(遊衣冠而月出) 구의풍우지유취(久矣風雨之攸萃) 막언성상지루경(邈焉星霜之屢更) 의성상모심견장(猗聖上慕深見牆) 자초원지체궁구(自初元志切肯構) 유태실전후이설(惟太室前後二設) 기인루이중수(旣因漏而重修) 범정각원근제릉(凡丁閣遠近諸陵) 역수경타이복건(亦隨傾侈而復建) 사자침도신이개구고차거광고이대금(肆茲寢圖新而改舊顧此舉曠古而待今) 원시경영(爰始經營) 산영지 지약유상(山靈地 之若有相) 기근박 (旣勤樸) 영석노반지소공치(郢石魯般之所共趁) 이위취즉정어고참(以位則取正於考參) 기제야절중어풍약(其制也折中於豐約) 층만부수(層巒扶繡) 호즉용봉반저지형(戶卽龍鳳盤翥之形) 옥야개단(沃野開端) 정내상조경운지처(庭乃象鳥耕耘之處) 흘사익이사혁(屹斯翼而斯革) 기봉신공(已奉神功) 애여견이여문(優如見而如聞) 차진법물(且陳法物) 영모유빙어재상(靈貌有憑於在上) 예충무감어봉선(睿衷無憾於奉先) 재거수량(載學脩樑) 공신선도(恭申善禱)

아랑위포량동(兒郎衛拋樑東) 효색동몽서옥홍(曉色瞳矓瑞旭紅) 요식방가금운회(要識邦家今

運會) 수간차일도천중(須看此日到天中)

아랑위포량서(兒郎衛拋樑西) 장릉송백망중제(長陵松柏望中齊) 종지기맥류통처풍어운기로  
불미(從知氣脈流通處風馭雲旗路不迷)

아랑위포량남(兒郎衛拋樑南) 계악최외용취람(桂嶽崔嵬聳翠嵐) 권석구비기적루(拳石苟非基  
積累) 위산하이여천참(爲山何以與天參)

아랑위포량북(兒郎衛拋樑北) 표리산하환자극(表裏山河環紫極) 덕후유광궤리소(德厚流光厥  
理昭) 익면홍조수천억(益綿鴻祚垂千億)

아랑위포량상(兒郎衛拋樑上) 천무불도인개양(天無不燾人皆仰) 천재제향공창망(千載帝鄉空  
悵望) 옥란하처이선장(玉欄何處移仙仗)

아랑위포량하(兒郎衛拋樑下) 사관소쇄근신야(祠官掃灑勤晨夜) 상전당일격신성(尙傳當日格  
宸誠) 초수균침감로사(草樹均沾甘露瀉)

복원상량지후(伏願上樑之後) 수이다복(綏以多福) 강지백상(降之百祥) 주기 창 주구공종팽  
영공(住氣 蒼 珠邱共宗祚永鞏) 보채표병(寶彩彪炳) 지주여천지장존(芝柱與天地長存) 공혜공  
명(孔惠孔明) 향사물체(享祀勿替) 비창비치(俾昌俾熾) 보우무강(保佑無疆)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참찬겸규장각검교제학(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檢校提學) 신조  
석우(臣曹錫雨) 봉교근찬(奉教謹撰)

승정대부(崇政大夫)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신남성원(臣南性元) 봉교근서(奉教謹  
書) 동치구년사월십사일신시(同治九年四月十四日申時)

### 1) 上樑文

#### 章陵丁字閣重建上樑文

靈原負坎 永攀劔舄之遺 仙寢改觀 重頌輪奐之  
美 用休申命 勿亟子來

恭惟 元宗 恭良 敬德 仁憲 靖穆 章孝大王 特挺  
英明 篤生神聖 忠君孝親出於性 值艱會而著巍勲  
仁民愛物爲之心 啓熙運而恢洪業 所以遵追王之禮  
序昭穆於宗宮 繼又奉摹天之容 配功德於南殿 念后  
範襲名家之訓 而慈眷隆佳婦之舉 賜玉璽以鎮一邦  
異夢驗受命之本 散金帛以勵諸將 大計贊舉義之  
初 睠彼同壤之甃隅 儼有擁岡之象設 筵帷靚邃 薦  
籩豆而時歆 扃扉肅清 遊衣冠而月出 久矣風雨之

攸萃 邈焉星霜之屢更 猗聖上慕深見墻 自初元  
志切肯構 惟太室前後二設 旣因漏而重修 凡丁  
闕遠近諸陵 亦隨傾陟而復建 肆茲寢圖新而改舊  
顧此舉曠古而待今 爰始經營 山靈地媪之若有相 旣  
勤樸斲 郢石魯般之所共趨 以位則取正於考參 其  
制也折中於豐約 層壘扶繡 戶即龍鳳盤翥之形 沃  
野開端 庭乃象鳥耕耘之處 屹斯翼而斯革 已奉神  
功 優如見而如聞 且陳法物 靈貌有憑於在上 睿衷  
無憾於奉先 載舉脩禱 恭申善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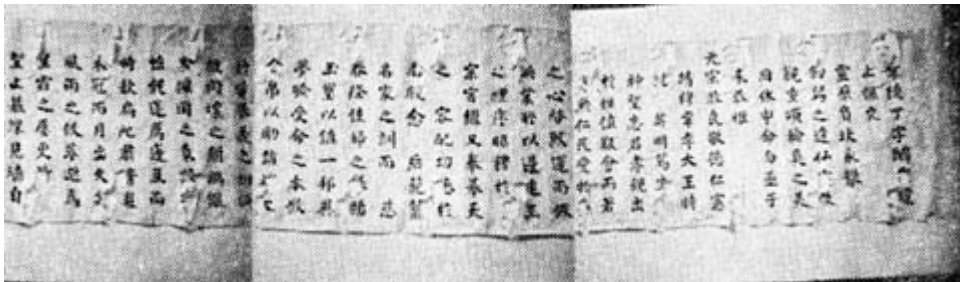
兒郎偉拋樑東 曉色瞳矓瑞旭紅 要識邦家今運會  
須看此日到天中

兒郎偉拋樑西 長陵松柏望中齊 從知氣脉流通處  
風馭雲旗路不迷

兒郎偉拋樑南 桂嶽崔嵬聳翠嵐 拳石苟非基積累  
爲山何以與天參

兒郎偉拋樑北 表裏山河環紫極 德厚流光厥理  
昭 益綿鴻祚垂千億

<page 250 상량문(2)>



<page 250 상량문(3)>

## 2) 역문(譯文)

장릉(章陵) 정자각(丁字閣) 중건상량문(重建上樑文)

영원(靈原: 신령한 언덕, 즉 능을 말함)이 자좌오향(子坐午向: 정남향)으로 자리하니, 영원히 왕의 옷과 신발을 간직하고, 선침(仙寢)<sup>1)</sup>이 일신하게 고쳐 지어지니 다시 아름다운 건물을 칭송하도다. 이에 아름답게 명을 내리니 독촉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자식처럼 와서 도왔도다.

삼가 생각컨대, 원종 공랑 경덕 인현 정목 장효대왕(元宗恭良敬德仁獻靖穆章孝大王)은

1) 선침(仙寢): 일반적으로 王陵을 말하나 여기서 丁字閣을 지칭한 듯하다.

우뚱히 영명(英明)한 자질을 타고 나시고, 신성(神聖)한 임금을 태어내셨네<sup>2)</sup>.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은 천성에서 우러나오니, 어려운 시기를 만나 큰 공훈을 나타내었고<sup>3)</sup>, 백성과 물(物)을 사랑함을 마음으로 삼으니 밝은 운수를 열어 큰 업적을 넓혔도다. 왕으로 추존(追尊)하는 예를 준수하여 종궁(宗宮)의 소목(昭穆)<sup>4)</sup>에 들고, 이어서 또 모사(摹寫)한 어진(御眞)을 받들어 남전(南殿)에 공덕을 배향(配享)하였도다.

생각하니, 후(后)의 의범(儀範)은 명가(名家)의 교훈을 이어받았는데, 자성(慈聖)의 권애(眷愛)는 아름다운 며느리로 여겨 융숭하였네. 옥새(玉璽)를 주어 한 나라를 진정하니 기이한 꿈은 천명(天命: 임금이 됨을 말함)을 받는 근본임을 징험하겠고, 금백(金帛)을 흠어 제장(諸將)을 격려하니 큰 계책은 의병을 일으키든 초기에 도와 이룩하였도다.

저 쌍봉(雙封)으로 모신 부우산(鮑隅山)<sup>5)</sup>을 보면 멧부리를 옹위하는 상설(象設)<sup>6)</sup>이 의젓이 서 있도다. 자리와 휘장이 조용하고 그윽하니 제물(祭物)을 올려 때로 흠향(歆享)하고, 빗장과 섬돌이 엄숙하고 깨끗하니 왕의 의관(衣冠) 가지고서 달마다 나와 노닐도다.<sup>7)</sup> 오래도록 비바람이 모여 스쳐간 바이고 아득히 성상(星霜) 또한 여러번 바뀌었도다.

아! 우리 성상(聖上: 고종을 말함)의 사모하는 마음 깊어 즉위 초년부터 건물 지을 뜻 간절하셨네. 태실(太室)은 앞뒤로 두 개의 건물인데 새로 축축함으로 인하여 다시 수축하였고, 모든 정각자각(정자각(丁字閣))과 원근의 여러 능도 또한 무너지는 대로 다시 건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능침(陵寢)의 정자각도 일신하게 하기 위하여 옛것을 고쳤는데, 이 일은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을 기다려 일으켰네. 이에 비로소 경영하니 산령(山靈)과 지신(地神)이 도와 주는 듯하고, 깎고 다듬는 일을 부지런히 하니 이름난 온갖 공장이 [영석노반(郢石魯般)]<sup>8)</sup>가 함께 모여 들었도다.

터로 말하면 고증하여 바름을 취하였고, 그 규모는 풍성하고 간약(簡約)함을 절충하여 지었도다. 층층진 봉우리는 비단을 두른 듯하니 집은 용이 서린 듯, 봉새가 나는 듯한 형상이며, 기름진 들판이 앞에 펼쳐지니 뜨락은 코끼리가 밭을 갈고 새가 김을 매는[상조경운(象鳥耕耘)] 그 곳이다.<sup>9)</sup> 우뚱히 나는 듯한 건물이 솟았으니 이미 신(神)의 공덕을 숭봉(崇奉)하고, 아련히 왕의 얼굴과 음성이 보이는 듯, 들리는 듯하니 또한 법대로 예물(禮物)을 진열하도다. 영모(靈貌: 신령을 말함)는 위에서 의지할 데가 있고 예충(睿衷: 임금의 마음)은 조선(祖先) 숭봉(崇奉)에 유감이 없도다. 이에 큰 건물을 지어 공손히 좋은 기도를 드린다.

이영차! 들보를 동으로 올리니  
영롱한 새벽 경치 아침 햇살 붉구나.  
나라의 지금 운수 알고 싶으면

2) 신성(神聖)한 …… 태어내셨네 : 元宗이 仁祖王을 낳은 것을 말함.

3) 어려운 …… 나타내었고 : 元宗이 壬辰倭亂 때 定遠君으로 父王인 宣祖를 扈從하여 扈聖功臣 2等に 봉해진 것을 말함.

4) 소목(昭穆)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天子는 1世 가운데 모시고 2世·4世·6世는 昭라하여 왼편에, 3世·5世·7世는 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昭·3穆의 7廟가 되고, 諸侯는 2昭·2穆의 5廟, 大夫는 1昭·1穆의 3廟가 됨. 즉 元宗이 王으로 追尊되어 宗廟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5) 부우산(鮑隅山) : 中國 河北省에 있는 山名. 전옥(顛頤)이란 帝王을 그 산 남쪽에 장사지냈다. 여기서는 元宗을 安葬한 산을 가리킨다.

6) 상설(象設) : 왕릉 주위에 설치한 文武石·望柱石·石獸 등의 石物을 말한다.

7) 왕의…노닐도다[遊衣冠而月出] : 漢代에 한 달에 한번씩 漢高祖의 衣冠을 가지고 漢高祖의 사당에 出遊하였다. 《漢書 淑孫通傳》 여기서는 元宗이 쓰던 衣冠을 가지고 달마다 능의 정자각을 거닐음을 말함.

8) 이름난 온갖 공장이[郢石魯般] : 원문의 영석(郢石)은 郢人과 匠石으로, 郢人은 옛날 미장이의 선수, 匠石은 들다듬는 석공. 魯般은 春秋 魯나라 때의 巧匠.

9) 코끼리가…그곳이다[象鳥耕耘] : 좋은 터를 말함. 옛날 舜임금이 蒼梧塲에서 죽자 코끼리가 밭을 갈았고, 禹임금을 會稽塲에 장사지내자 새가 김을 매었다 한다. 《越絕書》

중천에 솟은 이 해(日) 불지어다.

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장릉(長陵)의 송백(松柏) 눈앞에 가지런하네.  
알괘라. 기맥(氣脈)이 유통(流通)하는 그곳  
바람 길잡이, 구름 깃발에 길 아니 혼미함을.

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계양산(桂陽山) 높이 솟아 푸른 기운 어른거리네.  
권석(拳石)은 본디 쌓아서 산이 된 것 아니거니<sup>10)</sup>  
산 만드는 데 어떻게 하늘과 같게 하라.

이영차! 들보를 북으로 올리니  
안팎의 산과 하수 자극(紫極)<sup>11)</sup>을 둘러 있네.  
후한 덕 널리 퍼짐은 그 이치 환하거니  
큰 운수 더욱 이어져 천억 년 전해지리.

이영차! 들보를 위로 올리니  
하늘이 덮어줌에 사람 모두 우리르네.  
천 년의 제향(帝鄉)을 속절없이 바라보니  
옥난간 어디메에 제왕(帝王)의 의장(儀仗) 옮기려뇨.

이영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내리니  
사관(祠官)이 쓸고 닦으며 밤낮으로 근로하네.  
당일에 임금 마음 감격(感格)시킨 그 정성 아직도 전하거니  
초목(草木)도 감로(甘露)의 은택 고루 젖도다.

원하옵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많은 북으로 편안하게 하고 온갖 상서를 내려 주사이다.  
아름다운 산 기운이 어렸으니 주구(珠邱)<sup>12)</sup>는 종사(宗社)와 함께 영원히 공고하고, 건물의  
단청이 아름답게 빛나니 지주(芝柱)<sup>13)</sup>는 천지와 함께 길이 존재하여지이다. 더욱 은혜롭  
고 밝아 향사(享祀)가 끊이지 않으며,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끝없이 도와 주소서.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 겸 규장각검교제학(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檢校提學)  
신(臣) 조석우(曹錫雨)는 봉교(奉敎)하여 삼가 지음.

승정대부(崇政大夫)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sup>14)</sup> 남성원(南性元)은 봉교(奉敎)하  
여 삼가 씀.

동치(同治: 청 목종(淸 穆宗)의 연호)9년 (고종 7, 1870) 4월 14일 신시(申時)

10) 권석(拳石)은……아니거니 : 권석(拳石)은 주먹 만한 돌로 즉 큰 산을 가리킴. 《中庸 二十六章》에 “지금 산은 한 주먹 돌의 많음이다.” 하였는데, 주석에 ‘천지산천(天地山川)은 실로 쌓고 포개진 뒤에 크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1) 자극(紫極) : 임금의 거소.

12) 주구(珠邱) : 올망졸망한 산세. 風水說에 의하면, 산세가 올망졸망 맺힌 것을 명산으로 여김.

13) 지주(芝柱) : 靈芝의 기둥. 곧 건물의 기둥을 말함.

14)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 行은 行守法의 行이다.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行’이라 칭하고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守’라 칭하였는데, 行·守자는 官署名앞에 적기로 되었음. 南性元이 從一品의 崇政大夫 品階로서 보직은 正三品의 龍驤衛上護軍이었으므로 ‘行’자를 적었음.